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윤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

-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2015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신 나 리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  
-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윤경 지도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신 나 리

# 인 준 서

신나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오늘날 사회는 문화가 다양화되고 개방성을 띄면서 비주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예술분야의 전반에서 종래의 관습과 가치관을 초월한 전위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미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조인 ‘해체주의(de-constructivism)’가 등장하였다. 해체주의는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탈구축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철학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에는 문학, 예술, 건축, 패션, 미용 등의 전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되어 새로운 디자인 재해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이크업 분야와 접목시켜 예술적 가치를 논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현대의 메이크업은 단순한 미의 추구에서 벗어나 하나의 작품으로 가치를 지니고 작가의 사상과 당시의 사회 배경을 투영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점차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체주의 대표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 건축물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아트마스크를 제작함으로써 메이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고찰과 선행 논문 분석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해체주의 특성과 프랭크 게리 건축의 조형성을 살린 작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특성 중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해체주의가 미술, 패션, 건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대중들과 어떤 방

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장르간의 융합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랭크 게리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성장 배경을 알아보고 그의 창조적 디자인 개념을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 반영, 자유로운 형태 선호, 우연적인 형태 창출로 설명하였다. 또한, 작품적 특징을 모더니즘 계승 및 이탈 시기, 재료 물성 추구 시기, 형태언어 적립시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 시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과 시기별 특징을 토대로 그의 작품을 건축의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하여 정형성이 가진 형태와 질서를 왜곡·붕괴시켜 유기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비정형성, 의미의 혼합과 재구성 이질적 재료의 혼합으로 표현되는 중첩성, 무게중심 이탈, 방향성의 왜곡을 통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탈중력성, 형태 변화 없이 크기를 축소, 확대하여 흐름을 유도하는 스케일의 변형, 우연의 창출, 자유로운 해석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형태의 유희로 분류하였다.

셋째,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품 I은 우주의 이미지를 워터 마블링을 이용하여 나타냈으며, 우연적이고 유기적이며 비선형적인 형상으로 차연과 형태의 유희를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테어 노이에 출 호프’와 ‘네셔널 네덜란덴 빌딩’에서 영감을 얻어 홀로그램 종이의 구겨짐과 철판의 휘어짐을 통하여 비선형적인 움직임과 물성을 강조하고 구조적인 모습을 나타낸 작품으로 차연과 탈중력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II은 색이 다른 3개 마스크의 단차와 서로 다른 굵기의 철사를 이용하여 상호텍스트성과 비정형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마스크의 형태와 질서를 왜곡·붕괴시켜 유기적인 형태를 표현하였다.

작품 IV는 일그러트린 마스크에 조각낸 메탈을 이어 붙여 상호텍스트성

과 탈중력성을 나타냈다. 불안정한 상태와 물결치듯 이어져 있는 조각으로 움직이는 듯 한 율동성을 느낄 수 있다.

작품 V는 팔과 다리 등의 신체를 중첩시켜 이목구비를 나타낸 것으로 다의적인 해석을 의도하고 재료와 형태의 무한한 확장을 통하여 불확정성과 중첩성, 형태의 유희를 표현하였다.

작품 VI은 프랭크 게리 건축물에서 볼 수 있는 색채와 사각형을 발전시켜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이 연상되도록 의도한 작품으로 불확정성과 중첩성, 스케일의 변형을 표현하였다.

작품 VII은 주변에서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으나 오브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 나무껍질을 주재료로 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 작품으로 탈현상과 스케일의 변형을 표현하였다.

작품 VIII은 비비드한 컬러의 핫피스와 반짝이를 사용하여 해골의 정형적인 이미지를 해체한 것으로 구성방식의 파괴를 보여 주고자 하였으며 탈현상과 비정형성을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예술사조와 건축, 메이크업이라는 분야가 어우러져 하나의 새로운 융합 예술작품으로써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표현의 범위와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은 무한한 메이크업 디자인의 가능성과 아트마스크 작품을 통한 메이크업의 영구적인 전시와 더불어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	4
1. 해체주의.....	4
2. 프랭크게리.....	24
III. 작품제작 .....	38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38
2. 작품 제작.....	41
IV. 결론 .....	65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	40
<표 2>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42
<표 3> 작품 II 디자인 이미지.....	45
<표 4> 작품 III 디자인 이미지.....	48
<표 5> 작품 IV 디자인 이미지.....	51
<표 6> 작품 V 디자인 이미지.....	54
<표 7>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57
<표 8> 작품 VII 디자인 이미지.....	60
<표 9> 작품 VIII 디자인 이미지.....	63

## 그림 목 차

<그림 1> 마르셀 뒤샹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 15	15
<그림 2> 마르셀 뒤샹 「샘」 .....	15
<그림 3> 프랭크 스텔라 「호텔스크 III」 .....	15
<그림 4> 프랭크 스텔라 「카스투라」 .....	15
<그림 5> 장 폴 고티에 「마돈나 의상」 .....	18
<그림 6> 장 폴 고티에 「2008 F/W Paris」 .....	18
<그림 7>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3 F/W Paris」 .....	18
<그림 8>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0 S/S Paris」 .....	18
<그림 9> 베르나르 추미 「라 빌레뜨 공원」 .....	23
<그림 10> 베르나르 추미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	23
<그림 11> 피터 아이젠만 「주택 VI」 .....	23
<그림 12> 피터 아이젠만 「IBA 소셜하우징」 .....	23
<그림 13> 프랭크 게리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 .....	29
<그림 14> 프랭크 게리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	29
<그림 15> 프랭크 게리 「프레더릭 R 와이스먼 박물관」 .....	31
<그림 16> 프랭크 게리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	31
<그림 17> 프랭크 게리 「테어 노이에 출호프」 .....	33
<그림 18> 프랭크 게리 「네셔널 네덜란덴 빌딩」 .....	33
<그림 19> 프랭크 게리 「MIT 레이 앤 마리아 스타타 센터」 .....	35
<그림 20> 프랭크 게리 「게리 하우스」 .....	35
<그림 21> 프랭크 게리 「EMP」 .....	37
<그림 22> 프랭크 게리 「DZ 은행」 .....	37

<그림 23> 작품 I .....	43
<그림 24> 작품 II .....	46
<그림 25> 작품 III .....	49
<그림 26> 작품 IV .....	52
<그림 27> 작품 V .....	55
<그림 28> 작품 VI .....	58
<그림 29> 작품 VII .....	61
<그림 30> 작품 VIII .....	64

## I. 서론

현대사회의 예술 분야는 다양한 장르 탄생과 실험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여러 장르가 혼합되거나 탈장르화 되어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는 종래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모습으로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며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의 예술사조들을 패션, 건축, 메이크업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방성을 띄면서 유연성 있는 문화가 정착되었고 이는 소수 민족, 여성, 게이 등의 비주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여러 방식의 메이크업과 패션기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70년대 이후 대두되었던 해체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가치관과 전통적인 관습을 초월하는 전위적인 방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했다.

기존의 것을 ‘해체(deconstruction)’하고 탈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자체를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라 할 수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술사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해체는 단체의 흩어짐, 체제나 조직 따위의 붕괴, 부속이 떨어져 흩어지거나 풀어 해침, 구조물 등의 무너짐<sup>1)</sup>을 뜻한다. 행위적 관점에서의 부정적 경향이 강한 예술 사조로<sup>2)</sup> 1960년대 프랑스의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인 포스트 구조주의(post-structuralism)를 대표한다.

해체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나선영(2001)<sup>3)</sup>은 해체주의가 화

---

1)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 p.6815

2) 박연선(2007), 「색채용어사전」, 서울:예림, p.206

3) 나선영(2001), 「해체주의와 현대 화예디자인-테리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화예디자인학연구, 4(8), pp.63-77

예디자인 작품에 어떻게 표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고, 이하나(2011)<sup>4)</sup>는 에서는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 다양하고 독특한 형태미를 패션디자인 영역에 응용하여 해체주의 건축의 형태적 특징이 패션디자인으로 재해석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정희윤(2014)<sup>5)</sup>은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헤어 오브제와 의상 작품을 선보여 자유로운 형태의 헤어디자인으로서의 표현 영역을 넓혀 주었고, 박수진 외(2013)<sup>6)</sup>는 해체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의 표현양상 고찰을 통한 미래의 헤어디자인 영역의 기반을 만들었다.

화예, 패션, 헤어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해체주의의 접목이 하나의 융합 예술 작품으로 새로운 디자인 재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메이크업 분야에서는 고찰에만 그쳐 예술적 가치를 논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기존의 해체주의와 관련된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하여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을 제시하고 예술성을 극대화 하는 부분에서 미흡함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체주의 대표 건축가인 프랭크 게리 건축물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아트마스크를 제작함으로써 메이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다양한 시도의 구축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메이크업 이외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여러 장르간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창조 할 수 있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

4) 이하나(2010),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정희윤(2014),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헤어/패션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수진 외(2013),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2006~2011년 오프꾸뛰르·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9(2), pp.183-191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외 단행본과 선행 논문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인터넷 검색, 전시회 도록, 작품집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 대표작가와 프랭크 게리 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프랭크 게리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아트 마스크 작품 8개를 제작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해체주의가 응용된 미술, 패션, 건축의 분야별 대표 작가를 선정하여 작품의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프랭크 게리의 생애와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기법을 연구한다.

셋째, 앞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해체주의가 응용된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해체주의

#### 1) 해체주의의 개념

해체주의는 플라톤 이후 서구 철학의 토대가 되었던 형이상학적 가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하며 열린 세계를 추구하는 철학이론<sup>7)</sup>으로써 구조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 구조주의사상인 포스트구조주의에 포섭되는 하부개념이다<sup>8)</sup>. 이를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에는 문학, 예술, 문예 비평이나 건축, 패션, 미용 등 전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해체주의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조주의는 경직된 태도로 개개의 특성과 가치를 무시하며 모든 것을 객관화 시켜 언어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특성에 반발하여 포스트구조주의는 개체의 존엄과 자유를 인정하고 사고의 경직화를 피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졌으며 언어체계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였다<sup>9)</sup>.

해체주의는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 1930~2004)가 196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The Language of Criticism and Science Man)’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문과학의 언술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

7) 김옥동(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현암사, p.22

8) 김재원(2014),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0(1), p.186

9)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민음사, pp.13-15

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aman Science)」 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sup>10)</sup>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는 철학자였지만 그의 연구는 철학, 문학, 언어학, 법학, 건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의 분석 기제가 된 해체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론은 유럽의 형이상학을 전복하는 것으로 제도화된 철학으로부터 비판적 사유를 자유롭게 하고 개념과 개념성의 체계적인 지배를 극단적으로 의심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포스트구조주의를 대표하는 사상이며 기존의 구조주의의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하여 이전의 로고스 중심철학을 기본으로 한 일종의 반 문명 양식 운동이다<sup>12)</sup>. 철학적 비합리주의나 한 때 유행했던 반 계몽주의가 아니라 일상에서 의식되는 것들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선입견과 합리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여러 통념들을<sup>13)</sup> 완화시키려는 이론적 성향임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형성 배경을 통하여 등장한 해체주의는 파괴하려는 개념을 넘어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 탈구축해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반발하고<sup>14)</sup> 기존의 억압적인 권위에 저항하여 근원중심, 영원한 진리 등의 부채를 주장하며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

## 2) 해체주의의 특성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이론의 주요 특성들은 ‘해체(deconstruction)’, ‘글쓰기(ecriture)’, ‘흔적(trace)’, ‘차연(differance)’, ‘산중(dissemination)’, ‘보충(supplement)’,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

10) 양미숙 외(2008), 「해체주의 상호텍스트성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지, 2(1), p.6

11) 페터 지마, 김혜진 역(2001), 「데리다와 예일학파」, 서울:문학동네, p.13

12) 정희운(2014), 전계서, p.6

13) 페터 지마, 김혜진 역(2001), 전계서, p.54

14) 이하나(2010), 전계서, p.6

각각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 김지연 외(1997), 이미자(2008), 김현미(2000), 고영은(2012), 김민진(2006), 양미숙 외(2008)는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undecidability)’, ‘탈현상(decomposition)’으로<sup>15)</sup> 분류하였고 본 연구자는 작품 제작의 주제 또한 이러한 특성과 연관 지었다.

### (1) 차연

차연(差延)은 자크 데리다가 기호가 완전히 현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차이를 의미하는 ‘difference’라는 단어를 ‘differance’로 ‘e’를 ‘a’로 바꿔 만들어낸 신조어로 발음이 동일하여 오직 글로 표기 될 때만 차이를 알 수 있으며 현전성 강조에 대한 대응 개념이다<sup>16)</sup>. 형이상학, 특히 현상학의 공리인 이성적인 존재, 직관, 의식 따위를 비판하기 위하여<sup>17)</sup> ‘차이’와 ‘연기’의 두 가지 동사를 결합하였는데, 이것은 자기 충족적인 특성으로 현상학의 기본 토대가 된다.

공간적인 차이에 시간의 흐름을 도입하여 시·공간의 초월, 수평과 수직의 대립관계 파괴, 시·공간의 개념 해체 등을 의미 한다<sup>18)</sup>. 즉 하나의 요소와 다른 요소의 관계를 통해 갖게된 중립적이고 상대적인 의미가 동시성 체계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 하며, 데리다는 차연을 형식의 전체성이나 응집성, 완전성과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19)</sup>. ‘현존’과 ‘부재’라는 이분법적인 대립항으로는 설명 될 수 없는 구조로<sup>20)</sup> 차이와 흔적들의 관계를 만든다.

15) 김지연 외(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건축과 복식의 비교」, 복식, 32(9), p.295

16)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교보문고, p.124

17) 김민진(2006),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7(3), p.30

18) 김현미(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19)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민음사, p.87

20) 고영은(201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는 공간의 유희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 엘레아 학파(Eleatics)의 철학자 제논(Zēnōn)이 스승 파르메니데스(Parmenides)의 사상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한 제논의 역설들 중 하나인 ‘날으는 화살’을 예로 들어 차연을 설명해보면 그 화살은 결코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특정한 지점에 정지해 있고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현전하지 않는다. 운동의 현전은 이미 과거와 미래의 흔적으로 표시되는 한에서만 생각될 수 있다. 즉, 운동은 순간이 제공한 어떤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의 관계의 산물인 경우에만 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의 예에서 보았듯이 현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잡적이고 차별적이며 일련의 차연에 의해 표시 된다<sup>21)</sup>. 의미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그 어떤 기원적인 현존도 끊임없이 지연 된다<sup>22)</sup>. 이 세계라는 텍스트에 어떤 말, 개념, 진술도 중심적 의미가 될 수 없고, 요약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계의 텍스트는 결국 놀이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상호텍스트성

데리다의 해체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과 텍스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책은 체계적인 줄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일정한 형식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들어있는 의미 자체로 진가가 발휘될 수 있지만 텍스트는 상대 텍스트를 이용하고 대립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갖게 되고 해체라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된다. 텍스트는 서로 상대의 텍스트를 인용할 수밖에 없으므로<sup>23)</sup> 상호텍스트성이란 텍스트 간에 맺고 있는 상호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텍스트 중 어느 것도 완전히 현존 불가능하고 상호언급, 병행인용, 자율적 병행 불가능을 뜻한다.

21) 이광래(1989), 전개서, p.22

22) 페넬로페 도이처, 변성찬 역(2007), 「HOW TO READ 데리다」, 서울;웅진씽크빅, p.56

23) 이지윤(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9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이분법적 사고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데리다에 의하면 세계는 하나의 텍스트로 자율적인 존재가 불가능하며 서로 교차해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텍스트끼리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영역을 확장 시킨다<sup>24)</sup>. 다시 말해 데리다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는 복잡적으로 변화하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며 언술행위의 형태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중첩된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건축, 회화, 음악, 철학등과의 상호 텍스트성을 주장하게 된다<sup>25)</sup>. 성, 시간, 목적, 용도, 장소 등 경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여 범주가 없어지도록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현대에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인해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이 붕괴되었는데 이를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앤드로지너스(androgyne)의 근간이 되는 특성으로 전통적인 남녀의 성 역할을 해체함으로써 ‘남성스러운’, ‘여성스러운’과 같은 성 역할에 따른 차이를 무효화 시킨다<sup>26)</sup>. 성의 상호텍스트화는 자유로운 융합을 통하여 일반적인 성이 아닌 동등한 성, 적극적인 성, 개방된 성, 공유하는 성 등의 제3의 성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제3의 성은 남·녀의 독립적인 성이 아니라 남성스러운 여성, 여성스러운 남성, 중성성, 양성성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sup>27)</sup>.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상호텍스트성을 통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고 일원화, 획일화 되는 것을 거부하며<sup>28)</sup> 하나의 개체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24) 조말희(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25) 조진일(1994),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26) 김주현(1990),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27) 상계서

28) 조말희(1997), 전계서, p.54

### (3) 불확정성

해체주의는 기호의 재현가능성을 거부하고 로고스 중심주의와 이분법 해체에 따른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통합되었다<sup>29)</sup>. 해체된 텍스트는 그 자체의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에 의해 무한히 확장되어 개방성을 띄고 이는 의미의 불확정성 시발점이 된다<sup>30)</sup>. 의미의 불확정성이란 텍스트간의 사이, 혹은 텍스트 내부의 각 요소의 의미가 무한하게 확산되는 것을 일컫는다<sup>31)</sup>.

데리다는 의미란,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적 구조물일 뿐이며 불확정성이란, 모든 체계가 개방성을 띄어 무한히 확장되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차연의 해체전략을 토대로 형성되고 모든 개념들은 비결정적인 요소로서 체계를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 하에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sup>32)</sup>. 모든 것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여 한계 범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적이고 우연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불확정성은 규칙적인 형태가 없는 형태, 보편성이 없는 형식으로<sup>33)</sup> 어떠한 소재를 인체에 사용했을 때 연출될 수 있는 잠재적 특성으로, 표현방식에 따라 변형되는 부정확성, 무결정성을 추구한다.

### (4) 탈현상

데리다가 추구하는 탈현상은 단순한 형이상학의 부정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체제에서 우위의 개념에 비중을 두지 않고 질서를 파괴하고 이탈함으로써 구체화 시켜 재구성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탈현상은 탈구성(dis-composition)과 탈중심(de-centralize)의 두가지 이론적 구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탈구성은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해체의

---

29) 김현미(2000), 전계서, p.11

30) 고영은(2012), 전계서, p.11

31)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32) 김주현(1990), 전계서, p.10

33) 김민진(2006), 전계서, p.31

개념이기도 하다<sup>34</sup>). 텍스트를 파괴하고 분석하여 특정한 구조적 범위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관계없는 것들의 상호작용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되어 전체의 통일성을 해체시키는 것이며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sup>35</sup>). 이는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해체<sup>36</sup>) 새로운 구조체계를 구성하기 보다는 처음의 구조를 탐색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반가치를 재해석 한다.

데리다는 중심은 전체의 가운데에 있으나 전체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어딘가 다른 곳에 그 중심을 갖고 있다. 중심은 중심이 아니며 중심 있는 구조란 모순으로만 통일성을 갖고 있고 결국 중심으로서의 구조는 탈중심화하고 해체된다 라고 하였다<sup>37</sup>). 이와 같이 탈중심은 부정성의 논리로부터 발생하여 일체의 중심주의를 해체함으로써 무가치하고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열린사회, 열린 세계를 지향하고<sup>38</sup>), 소외되었던 것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미학을 창조하는 것이다.

기존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었던 비주류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서양의 획일적인 국제적 보편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 지향적, 토착적, 지방성 지향으로 나타났다. 흑인과 아시아권의 유색인종이 부상하게 되었고 기독교 중심에서 벗어나 동양의 유교, 불교 및 소수 민족의 종교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sup>39</sup>).

---

34) 이지윤(1994), 전계서, p.72

35) 임광숙(1998),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2

36) 상계서, p.85

37) 김주영(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4

38) 김성곤(1988), 전계서, p.22

39) 양윤정(1993),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24

### 3) 해체주의 대표작가

#### (1) 미술

해체주의 미술은 모든 법칙을 의심하고 근본으로부터 해체하여 현대의 비정형적인 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sup>40)</sup>. 이는 기존의 상황을 변형하고 왜곡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희’의 개념과도 유사성을 지닌다. 미술부문에서의 해체주의는 이론의 틀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무규정 상태로 향하는 충동, 경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며<sup>41)</sup> 회화적인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조형, 설치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해체주의 미술의 대표적인 선구자로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과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1936~)가 있다.

마르셀 뒤샹은 프랑스 브랭빌 크르봉에서 출생한 화가로 ‘사물의 재현’이라는 전통적인 회화를 부정하고 미술품이 작가의 창작 행위 없이 선택만으로도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음을<sup>42)</sup> 증명한 인물이다.

그의 개혁적인 생각과 태도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노선의 작가들을 포함하여 실험정신을 추구하는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가 제시한 미술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표현 방법은 다다이즘, 신사실주의, 행위미술, 개념미술<sup>43)</sup>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뒤샹의 작품세계를 보면 모든 해체주의적 작품들에서 의미의 존재와 부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는 거대한 유리판으로 상·하 두 개

40) 김재원(2014), 전개서, p.186

41) 심명숙(2009), 「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3

42) 현수정(2010), 「마르셀 뒤샹 작품에 나타난 앤드로지니의 차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

43) 상계서

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위쪽은 신부를 대용하는 기계장치가 아래쪽은 독신자를 규정하는 기계장치들이 동작하며 서로를 자극한다. 이 작품은 작업 자체로서의 난해함뿐만 아니라, 제목을 붙이는 작가의 행위마저도 현대 미술의 한 영역임을<sup>44)</sup>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은 브룩클린 전시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부주의로 유리가 깨어졌고, 뒤상은 깨어지는 행위와 이를 수리하는 일련의 과정 모두를 작업의 일부분으로 정의하여 1923년 완성하였다.

마르셀 뒤샹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건을 선택하여 새로운 제목을 붙이고 새로운 시각을 붙여 넣음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없애고 새로운 개념을 창안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작품이 <그림 2>의 「샘(Fountain)」이다. 파리의 앙데팡당전(salon des indépendants)에 출품된 작품으로 남성 소변기의 방향을 바꾸어 편편한 부분을 바닥을 향하게 눕혀놓고 배수관 바로 옆 부분에 'R. Mutt 1917'라고 서명한 작품이다.

그는 새로운 이름과 관점 아래 본래가 지녔던 실용적 의미가 사라지도록 배치하여<sup>45)</sup> 소변기라는 소재의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다. 기하학적으로는 아름다우나 미학적 차원에서는 선호할 수 없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샘」은 그가 발언한 원리들과 관련해 입지를 분명히 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사건<sup>46)</sup> 중 하나가 되었다. 「샘」은 그 당시의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켜 전시회 기간 동안 보이지 않게 가려졌으며 현재에는 원래의 작품이 존재하지 않고 복사본으로만 존재한다.

프랭크 스텔라는 1950년대 말 모더니즘 미술의 정수로 불리던 추상표현주의가 주류를 이루던 때에 뉴욕 화단에 등장했다. 이 시기는 모더니즘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한 때로 매너리즘에 빠진 추상표현주의

---

44) 김재원(2014), 전개서, p.187

45) 유미숙(2007), 「부정과 실험정신으로 본 마르셀 뒤샹의 예술세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46) 상계서

를 대신할 새로운 종류의 미술에 대한 요구가<sup>47)</sup>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추상미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인물로 폐쇄적인 모더니즘을 해체하는데 주력했다.

스텔라의 작품은 데리다가 말하는 원전개념의 해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좁게는 과거의 형식과 이념을, 넓게는 모더니즘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텍스트의 의미를 회의하고<sup>48)</sup> 더 나은 것으로 향함으로써 자기해체를 끊임없이 시도했다. 그는 회화, 조각, 판화, 건축 등의 다양한 형태의 추상미술을 꾸준히 제작해왔으며 추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추상회화의 시각성, 장르간의 독립성, 예술가로의 독창성, 서술성의 배제라는 모더니즘 규범을 해체하고 미니멀리즘을 이끌어내는<sup>49)</sup> 역할을 하였다.

<그림 3>의 「오델스크Ⅲ(OdelskⅢ)」은 서로 다른 색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면작업으로 보이지만 아주 낮은 부조작업으로 관람자가 어떠한 색면을 기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해석이<sup>50)</sup> 가능하다. 명도차에 의해 노란색 면 아래 회색 면이 놓인 것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보이지만 노란색 면의 삼각형과 마주하고 있는 파란색 T자형이 만나 삼각형 모양의 상자처럼 3차원의 형태로 보이면서 그 부분이 비스듬히 돌출되어 보인다.

이와 같이 스텔라는 2차원의 회화를 3차원 실제공간에서 구축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모더니즘의 규범 하에 억압되어 있던 공간 개념을 회화면에 융합시키는 부조작업을 보여주었다.

<그림 4>의 「카스투라(Kastura)」는 알루미늄, 메탈관, 철망 등 혼합재료를 사용하여 둥글게 굽은 격자형태의 구조물 위로 다양한 커브 구조물들이 얹혀 있는 작품이다. 금속 망사층의 아래층, 가장자리에 지지된 운형자

---

47) 이해원(2013), 「프랭크 스텔라 작품을 통해 본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해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48) 심명숙(2009), 전게서, p.36

49) 문미영(2003), 「프랭크 스텔라 작품에서의 형태연구」, 예술문화논집, 5(1), p.120

50) 이해원(2013), 전게서, p.35

형태의 평면이 있는 중간층, 상이한 각도로 운형자들의 평면을 침투하고  
돌출하면서 튀어나온 형태로 구성된 윗 층<sup>51)</sup> 총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자형태 금속망사가 사용되어 관람자가 뚫린 공간 사이로 벽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구조는 관람자가 움직여야 작품의 형태와 전체 구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sup>52)</sup> 조각을 감상할 때와 같은 신체의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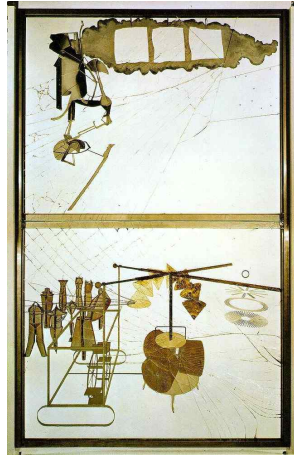
프랭크 스텔라는 투철한 장인정신과 흔들림 없는 탐구자세로 완성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형의 과정을 거치고 근원으로 들어가 해체적으  
로 변형시키는 작업을<sup>53)</sup>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의 해체는 심미주의적  
태도를 허용하지 않고 단조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충  
격으로 다가온다.

---

51) 김지현(2001),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 연구-1970~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6

52) 이혜원(2013), 전계서, p.38

53) 김재원(2014), 전계서, p.194



<그림 1> 마르셀 뒤샹,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1923  
 (<http://www.mu-um.com/Files/Art/kor/201407/1406450671.jpg>, 2014.9.17)



<그림 2> 마르셀 뒤샹, 「샘」 1917  
 (THE AMERICAN CENTURY,  
 리사필립스 저(2008), P.125)



<그림 3> 프랭크 스텔라, 「오델스크Ⅲ」  
 1971  
 (<http://uploads7.wikiart.org/images/frank-stella/odelsk-iii-1971.jpg>, 2014.9.18)



<그림 4> 프랭크 스텔라, 「카스트라」  
 1979  
 (<https://www.flickr.com/photos/slider5/418135151/>, 2014.9.18)

## (2) 패션

패션에서의 해체주의는 소외되었던 모든 테마들의 등장과 함께 복식의 모든 구성요소가 해체되어 얽혀 있으며 상징적 소재는 엉뚱하게 뒤바뀌어서로 치환과 차용으로<sup>54)</sup> 재구성 되고 있다. 해체패션은 시각적 파괴만이 아니라 의미의 재해석으로 파악되었고<sup>55)</sup> 기하학적, 역설적인 형태를 취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 무질서, 파괴, 분열, 붕괴, 불연속의 개념을 나타내는 특징을<sup>56)</sup> 가진다. 이는 의복을 분리하고 재구성하거나 소재를 찢고 더럽히며 구김을 주는 등의 방식 등으로 나타났다.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선구자로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1952~)와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1941)가 있다.

장 폴 고티에는 프랑스 태생으로 디자이너로 정식 교육은 받은 적이 없지만 그의 재능을 알아본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1922~)에 의해 18세에 패션계에 입문하였다. 패션계의 악동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늘 뉴스를 몰고 다니는 디자인을 선보인 인물로 해체주의 패션의 대표주자이다. 그는 기성 가치의 타파를 선언하는 안티패션의 기수로 1983년 선보인 란제리룩은 사적인 영역인 속옷을 공적인 영역인 겉옷으로 경계를 허물어 속옷의 겉옷화를 보여주었으며<sup>57)</sup> 이는 해체주의 이론원리가 가장 잘 나타난 그의 대표적인 의상으로 손꼽힌다(그림5).

장 폴 고티에의 작품에는 의복구조와 형태의 해체, 성의 혼합, 속옷의 겉옷화, 이질적 아이템, 이미지, 소재, 패턴의 결합, 더블아이템 코디네이션의 특징이<sup>58)</sup> 잘 나타 있다. 또한 비닐, 라텍스, 신축성 있는 툴, 각종 주방기구

54) 김아진 외(1999),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논문집, 16(1), p.1625

55) 김혜정 외(1998),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10), p.141

56) 이하나(2011), 전계서, p.34

57) 상계서, p.38

58) 윤소정(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탈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와 같은 하이패션에 어울리지 않는 소재들을 창의적으로 사용했고 다양한 연령과 신체 사이즈를 가진 사람들을 런웨이에 내보낸 디자이너 중의 한 사람이었다(그림6).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1941년 영국 중부의 더비셔에서 출생하여 1971년 그녀의 연인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과 함께 런던의 부띠끄를 열게 되면서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1970년대에 런던에서 일어난 핑크 패션의 선구자이며 영국을 대표하는 아방가르드 패션디자이너이다<sup>59)</sup>. 1970년대의 전위적이고 파괴적인 핑크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 이후에는 문화와 전통으로 영감을 받아<sup>60)</sup> 디자인으로 표현하였으며 그녀의 작품은 이질적 이미지, 아이템과 패턴의 결합, 서로 다른 시대 스타일의 공존, 속옷의 겉옷화, 격식에서 벗어난 코디네이션<sup>61)</sup>, 기존의 착장법의 탈피 등 패션의 개념을 깨뜨린 표현방식에서 해체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다(그림7).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이질적인 시대의 스타일을 혼합시키면서 시대의 해체를 주장하였으며 모든 것은 역사에서 시작되고 역사나 문화를 혼합시킴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sup>62)</sup> 생각하였다. 문화와 전통은 매 컬렉션에 독특한 아이디어와 형태로 표현되어 왔고 시각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 핑크와 쿠티르라는 상반된 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 되어졌다(그림8).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 아닌 해체, 재구성의 방법으로 적용되어 주관화된 복고를 의미하며<sup>63)</sup> 극도의 시각적 믹스매칭과 의도적인 변형을 볼 수 있다.

---

59) 엄혜정(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복식, 37(5), p.72

60) 상계서, p.86

61) 윤소정(1996), 전계서, p.28

62) 은영자 외(2002),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과학논집, 28(9), p.104

63) 윤소정(1996), 전계서, p.27



<그림 5> 장 폴 고티에,  
「마돈나 의상」  
(<http://vogue-era.tumblr.com/image/91828528187>, 2014.9.18)



<그림 6> 장 폴 고티에,  
「2008 F/W Paris」  
(<http://cfs11.blog.daum.net/image/2/blog/2008/08/04/20/25/4896e6f46536f&filename=%ED%8C%A8%EC%85%98%EC%91%883.jpg>, 2014.9.18)



<그림 7>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3 F/W Paris」  
(<http://thebestfashionblog.com/wp-content/uploads/2013/09/Vivienne-Westwood-Fall-Winter-2013-2014-RTW-6-600x899.jpg>, 2014.9.18)



<그림 8>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0 S/S Paris」  
([http://postfiles15.naver.net/20140307\\_30/0200375032\\_13941792073395FidH\\_JPEG/6.jpg?type=w2](http://postfiles15.naver.net/20140307_30/0200375032_13941792073395FidH_JPEG/6.jpg?type=w2), 2014.9.18)

### (3) 건축

해체주의 건축은 1970년대에 시작하여 80년대와 9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기존의 건축사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건축에 인문학 분야의 지식과 미학 이론을 접목시키려는 경향들이<sup>64)</sup>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8년 영국의 런던 테이트(Tate) 갤러리에서 ‘건축에 있어서의 해체(Deconstruction in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리면서 해체주의 경향을 정리하고, 건축가들이 데리다의 해체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형태를 통하여 세계를 변화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모더니즘 건축이 내세웠던 이상과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신념을 파기하는<sup>65)</sup> 것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건축을 쓸모없거나 추하고 거주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오래된 목표나 건축 외의 목적으로부터 건축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sup>66)</sup> 목표가 있다.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은 기하학과 시공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의미의 폭이 확대되었으며<sup>67)</sup>, 기존의 형태 변형, 조작, 뒤틀기를 통하여 유희적인 성격을 부각시키고, 혼합, 무질서, 우연, 변형 등의 구성을 통하여 불연속적이고 단편화된 형태의 변화를 강조한다. 또한 디자인 개념에 있어서 개방성을 중시하고 어떤 건축물이든 시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며 포스트모던 건축이 갖는 재현성의 문제를 비판하고 다양한 상상력과 경험, 개방적<sup>68)</sup> 특성을 가진다. 프랭크 게리와 함께 해체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선구자로는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1944)와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

64) 허정아(2004), 「베르나르 츠미의 해체주의 건축미학-라 빌레트 공원에서의 건축과 철학의 만남」, 미학, 38(8), p.264

65) 상계서, pp.265-266

66) 조진일(1994), 전개서, p.17

67) 양세은(1992),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2

68) 조진일(1994), 전개서, pp.17-18

nman,1932)이 있다.

베르나르 추미는 스위스 로잔 출생으로 건축가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어떠한 건축도 사회로부터 자율적이지 않으며 순수한 형태로 간주될 수도 없고 언어로 환원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다<sup>69)</sup>. 또한 형태의 과거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시대적 현상에 대한 건축적 인식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는<sup>70)</sup> 것에 관심을 가졌다.

추미는 1983년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그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인 국제 현상 설계 공모전에서 <그림 9>의 라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설계자로 뽑혔으며 이 공원은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파리 북동쪽 끝에 위치한 라 빌레뜨 공원은 전대미문의 초급진적인 해체주의적 디자인으로 드라마틱한 빌딩, 산책로, 교량 및 정원들이 자리 잡고 있다<sup>71)</sup>. 자연이 아니라 문화가 살아있는 독특한 공간으로 점, 선, 면의 3개의 독립적인 시스템이 중첩되면서 형성된다. 여러 라인으로 겹쳐진 붉은 에나멜 스틸은 공원을 관통하면서 공원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접근법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공간경험을 제공하고 있다<sup>72)</sup>. 라 빌레뜨 공원은 대형 과학 산업 박물관과 시티 오브 뮤직, 전시를 위한 그랜드 홀, 락 콘서트 홀까지 갖추고 있어 매년 8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 외에도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New Acropolis Museum), 신시내티 대학 육상센터(University of Cincinnati Athletics Center), 르 프레누와 국립현대미술센터(Le Fresnoy-National Studio of Contemporary Art)등의 많은 건축물들이 있으며 이 건축물 등을 통하여 그리스 국제 대회 수상, 스위스 국제대회 수상 등 세

---

69) 박영욱(2008), 「현대건축의 담론에 나타난 공간개념의 비판적 고찰-베르나르 추미와 장 누벨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9(3), p.244

70) 허정아(2004), 전계서, p.267

71) 방광자 외(2006), 「베르나르 추미의 라 빌레뜨 공원에 관한 연구」, 실내조경, 8(1), p.2

72) 상계서, p.7

계적인 상을 수상하고 국제적인 건축가로 인정받게 되었다(그림10).

피터 아이젠만은 1932년 미국의 뉴저지에서 출생하여 코넬 대학, 콜롬비아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을 거친 이론을 겸비한 건축가이다. 60년대 해체주의 건축의 선두주자로 1970년대 초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의 젊은 건축가들과 함께 ‘다섯명의 건축가(Five Architects)’를 발간하면서부터<sup>73)</sup>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는 길들여진 미학으로부터 탈피하고자 건축 내·외부의 사고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기본 단위도형들을 다양하게 변형시켰으며<sup>74)</sup> 도전적인 탐구를 통해 건축의 요소인 형태에 관심을<sup>75)</sup> 집중하여 설계를 하였다.

아이젠만의 대표작으로는 하우스 프로젝트(House Project)를 꼽을 수 있다. <그림 11>의 하우스 프로젝트는 실제구조의 활용성 혹은 실제 재료의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형태를 생성하고 관념을 탐구하는 판지건축을 통해 자율적 질서를 가진 구축적 방법을 제안하였다<sup>76)</sup>. 사각형이 다양한 각도로 중첩되어 형태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에 따라 그리드, 비례, 투사, 중첩으로 분류된다.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작업을 통해 그리드의 반복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형태 생성을 의도하였으며 축의 회전과 사선으로 공간과 형태를 분해, 해체되는 과정을 도입시켜<sup>77)</sup> 다양한 건축형태를 만들어내었다.

<그림 12>의 「IBA 소셜하우징(IBA Social Housing)」은 그의 대표적인 중기 작품으로 그리드의 구축적 건축제약을 해체하면서 더욱 자유로운

73) 손성희(2013), 「피터 아이젠만 건축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74) 김동준 외(2004), 「프랭크 게리와 피터 아이젠만의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적용 방법과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0(11), p.215

75) 이지민(1999), 「피터 아이젠만의 해체주의 이론과 작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20), p.153

76) 김선란 외(2010), 「피터 아이젠만의 자율적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26(3), p.125

77) 김두진 외(2008), 「피터 아이젠만 건축의 스키마와 생성다이아그램」,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학술발표대회논문집, 4(1), p.7

디자인 전개가<sup>78)</sup> 이루어진 건축물이다. 지도 위에 대지의 과거 흔적을 중첩시킴으로써 새로운 대지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건물을 설계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

78) 손성희(2013), 전개서, p.12



<그림 9> 베르나르 추미,  
「라 빌레뜨 공원」

(<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3cb396f0ec99c4973cbd29e41769&name=Parc-de-la-Villette.jpg>, 2014.9.18)



<그림 10> 베르나르 추미,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http://cfile9.uf.tistory.com/image/2278C236524E5A100F380E>, 2014.9.18)



<그림 11> 피터 아이젠만,  
「주택 VI」

(<http://ad009cdnb.archdaily.net/wp-content/uploads/2010/06/1275626736-njit2pic-528x312.jpg>, 2014.9.18)



<그림 12> 피터 아이젠만,  
「IBA 소셜하우징」

([http://www.itaproject.eu/TTU/2/02\\_images/b04-Berlino-Eisenman\\_01.jpg](http://www.itaproject.eu/TTU/2/02_images/b04-Berlino-Eisenman_01.jpg), 2014.9.18)

## 2. 프랭크 게리

### 1) 프랭크 게리의 생애

프랭크 게리(Frank Gehry)는 1929년 2월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출생하였으며 폴란드계 유대인 부모님 밑에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그의 어머니 텔마 골드버그(Thelma Goldberg)는 게리가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에 데리고 다니며 순수 미술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sup>79)</sup> 예술적 기질을 형성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었다. 10대 시절 조부모의 철물점에서 일하면서 그 또래에 쉽게 접할 수 없는 함석판, 파이프, 쇠사슬, 금속기구류 등의 여러 가지 도구와 재료를 이용해 모형도시를 만들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과 조형작업에서 순수미술의 특색을 표출 하였고, 재료들의 물성에 흥미를 가지고 일상적인 범위에서 병치시킴으로써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는 작업들을 가능하게 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게리 가족은 194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당시 가족 단위가 붕괴되고 개인화 되는 미국 서부 특유의 사회 상황들에 충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의 작품전반에 분절되고 파편화된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두드러진 조형적 특징이 된다. 그 후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에 다니면서 건축가와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sup>80)</sup>, 훗날 건축가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조형작업의 예술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는 1956년 하버드대학교 디자인 대학원(Harvard Graduate School of Design)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후 역사적인 건축물에 대한 갈망으로 1년

---

79) 정희윤(2014), 전계서, p.20

80) 이영화(2003), 「프랭크 게리의 조형 언어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디자인학연구, 16(2), p.222

간의 유럽생활을 하였다. 이는 역사 전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재해석과 함께 끊임없는 탐구로 이어져 그의 작품에 투영되어졌다. 1962년 미국으로 돌아와 로스앤젤레스에 자신의 설계사무소(Frank O. Gehry & Associates Inc)를 설립하여<sup>81)</sup> 건축가로서의 작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게리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며 최고의 영예인 ‘프리즈커 건축상(Pritzker Architecture Prize,1989)’을 수상하였고, 예술분야에 공헌한 것을 인정받아 ‘도로시 앤 릴리안 기쉬상(The Dorothy and Lillian Gish Prize,1994)’의 예술부분 첫 수상자가 되었으며 파리의 ‘아메리칸 센터(American Center)’로 진보적 건축상(1991),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Vitra Design Museum)’으로 휴고 헤링상(Hugo Haring Prize,1991)을 수상하였다<sup>82)</sup>. 이외에도 완공된 건축물로 수많은 수상을 하였고 UCLA(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등 세계적인 건축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하였다.

## 2) 프랭크 게리 건축의 특징

프랭크 게리는 대표적인 해체주의 건축가로 기존의 논리와 규칙, 질서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의 개념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와 제작과정을 중시한다. 그의 창조적 디자인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건축 디자인에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 반영을 시도하며 기존의 사고 형식을 깨뜨리며 자유로운 형태를 선호하고, 순간의 동적 변화 속에 나타나는 우연적인 형태를 창출한다<sup>83)</sup>. 그의 건축은 독특한 형태와 즉흥적인 작업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리드 체계상의 평면 스케치를 하는 기존의 건축가들과 달리 즉흥적이거나 스케치 없이 여러 가

---

81) 이일형(2004), 「프랭크 게리 최초의 해체주의 건축가」, 파주:살림, p.18

82) 상계서, pp.20-21

83) 김동준 외(2004), 전계서, p.213

지 재료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행하였다.

그의 작품적 특징은 지속성을 보여주는 4시기로 나누어지며 1기는 모더니즘 계승 및 일탈 시기, 2기는 재료 물성 추구 시기, 3기는 형태언어 정립 시기, 4기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 시기로<sup>84)</sup> 분류된다.

1기(1950년대 말~1960년대 말)는 건축가로서 자신의 언어를 탐색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로 교육받았던 서구 모더니즘 건축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적이고 비 장식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모더니즘의 규범 및 언어로부터 일탈을 시도하기 위해 모더니즘 건축의 직교좌표, 완벽한 비례, 겹침의 방식에서 벗어나 비상식적 병치를<sup>85)</sup> 통해 각 재료의 물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였다.

2기(1960년대 말~1980년대 초)는 형태와 재료에 변화를 주어 구성적이며 조소적 요소를 병행한 역동성을 볼 수 있는 시기으로써 불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인 면을 바탕으로 비정형적인 건축이 나타난다<sup>86)</sup>. 건축에 있어 비일상적이고 상이한 재료를 병치시켜 미완성의 미를 추구하고 작업과정 자체를 강조하였다.

3기(1970년대 말~1990년대 초)는 재료를 탐구하는 시기로 게리만의 형태언어를 형성하고 정립하였다.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 1929.1.28~)와의 협업을 통해 많은 오브제를 제작해 건축에 적용하고 건축형태에 구상성을 도입하였다. 또한 도시문화의 다원성과 대중성에 긍정적인 관심과 은유를 나타내고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sup>87)</sup>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4기(1990년대 초~현재)에는 건축에 새로운 재료와 CATIA(3차원 컴퓨터

---

84) 이영화(2003), 전계서, p.222

85) 이영화(2007), 「현대미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프랭크 게리 건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5-126

86) 전범우(2006), 「프랭크 게리 건축의 형태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9

87) 상계서, p.42

모델링 프로그램)를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였다. 이 시기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도출 불가능한 새로운 형태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sup>88)</sup>, 곡선을 이용해 건축물에 움직임을 만들어 시간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시기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의 형태 언어 정립과 함께 해체주의 조형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탄생시켰다.

### 3) 프랭크 게리의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적 특성

해체주의 건축은 기존 건축의 형태 변형, 조각, 뒤틀림 등의 해체주의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재조합하여 나타낸다<sup>89)</sup>. 이러한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적 특성은 비정형성, 중첩성, 탈중력성, 스케일의 변형, 형태의 유희로 분류할 수 있으며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 또한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비정형성

비정형성은 건축이 가진 양식과 규율을 거부하며 정형성이 가진 형태와 질서를 왜곡·붕괴시켜 자유 의지를 불어넣은 유기적인 형태를 의미한다<sup>90)</sup>. 이는 고전적인 직교 좌표 위에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감각에 의해 형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기울어진 벽체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파괴, 축의 치환과 같은 방식으로 건축에 나타나며 형태의 왜곡, 변형, 분열, 비선형, 비리듬, 비대칭, 탈중심, 탈구성의 특징을 가진다.

<그림 13>의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Vitra Design Museum,1987-1989)」은 곡선을 처음 사용한 비정형성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독일의 소도시

---

88) 이영화(2003), 전계서, p.230

89) 이하나(2011), 전계서, p.8

90) 상계서, p.9

바일 암 라인에 가구를 실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사무실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 공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얀 종이를 말아놓은 듯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외벽 위에 얇은 금속재가 덮여 있으며 내부공간이 그대로 외부의 형태에 드러난다<sup>91)</sup>. 한 전시실에 수집한 의자들을 전시하고 또 다른 공간에 인테리어 시스템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기위해 두 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물관 옆에는 박스 형태의 공장이 들어서 있다. 복잡한 형태에 화이트 톤을 사용하여 물성 대신 형태에 집중될 수 있게 하였고, 외부로 돌출된 나선형 계단에 나타난 곡선은 정지된 건물에 움직임과 역동성을 부여하였다. 비정형적 매스의 결합을 통한 조화로운 3차원적 공간구성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조각과 같은 형태적 특성이<sup>92)</sup> 나타나고 이는 회사의 독특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그림 14>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 1987-2003)」은 1987년 설계되었으나 예산과 시공상의 난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2003년에 완공된 작품이다. 10년 이상의 시간으로 인해 설계 당시 보다 변화·발전되어<sup>93)</sup> 완공되어 졌으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적용으로 비선형적 형상을 가시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해낸 대표작품이다. 콘서트홀은 만개한 꽃 이미지를<sup>94)</sup> 모티브로 하여 극도의 접힘과 틀어짐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율동성을 부여하고<sup>95)</sup> 하나의 조각과 같은 조소적 특성을 잘 보여주었다. 스테인레스 스틸을 작은 면으로 나누어 재료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다원성을 은유한 매스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은 하나의 완결성을 이룸과 동시에 부분과 전체의 연결지점의<sup>96)</sup> 설정을 통해 독특한

91) 오정훈(2007), 「프랭크 게리의 건축 형태와 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레이 마리아 스타타 빌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92) 정희운(2014), 전개서, p.27

93) 전범우(2006), 전개서, p.45

94) 이진재 외(2004), 「장 보드르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의 이미지 변화로 살펴본 건축표현에 관한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획계, 24(2), p.442

95) 윤재은(2000), 「해체주의 건축의 외적 조형성과 내적 조형공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4(4), p.29

형상의 오브제로 승화되어 도시에 자리 잡았다.



<그림 13> 프랭크 게리,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 1987-1989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79)



<그림 14> 프랭크 게리,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1987-2003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123)

---

96) 권려원(2010), 「프랭크 게리 작품을 응용한 드레스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35

## (2) 중첩성

중첩성은 면이나 형태들이 여러층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하며 해체주의 건축가들이 형태 창작요소로 중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건축에서는 동시성, 침투성, 시공, 투명성, 중합, 다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원형과 다른 형태, 의미의 혼합과 재구성, 이질적 재료의 혼합으로<sup>97)</sup> 표현되어진다.

<그림 15>의 「프레더릭 R 와이스먼 박물관(Frederick R. Weisman Art Museum,1990-1993)」은 미국 미네소타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여<sup>98)</sup> 형태나 재료에 있어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비정형적 매스와 정형적인 매스가 결합되었고 다양하게 절단된 서로 다른 원형들이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는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사선과 뒤틀림을 이용해 역동성이 표현되었으며 개체들에 질서를 부여하여 응집시키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스페인의 빌바오에 위치한 <그림 16>의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Guggenheim Museum Bilbao,1991-1997)」는 게리의 명성을 세계로 확대시킨 작품으로 조선과 철강 산업의 쇠퇴로 위기를 맞았던 도시 빌바오에 배 모양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세워 도시재건을 도모하였다. 중앙 집중화가 한층 더 강조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티타늄(Titanium)을 사용하여 빛에 따라 색이 달라 보이도록 하였고, 작은 매스들을 중앙부분으로 겹쳐지듯 쌓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이는 각 매스가 분리되어 있는 듯하면서도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 건축에서 느낄 수 있는 통합을 지향하고 연속성과 움직임의 볼 수 있다. 미술관을 강 맞은편에 위치한 대학과 시청 앞 다리와 시각적으로 연결하고자<sup>99)</sup> 하였으며 직사각형의 형태에 자유로운

97) 남형우(1989), 「현대 건축에 나타난 공간 형태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98) 밀드레드 프리드먼, 이종인 역(2010),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파주;미메시스, p.132

곡선으로 처리된 요소들을 결합시켜 형태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그림 15> 프랭크 게리, 「프레더릭 R 와이스먼 박물관」 1990-1993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133)



<그림 16> 프랭크 게리,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1991-1997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146)

---

99) 오정훈(2007), 전계서, p.53

### (3) 탈중력성

탈중력성은 수직, 수평 개념을 깨뜨리는 중력의 반발적 표현으로 비위계성, 무게중심의 이탈현상 등 방향성의 왜곡을 통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경사진 바닥과 매스의 부양, 기둥과 벽의 중심이동으로 건축물에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그림 17>의 「데어 노이에 출호프(Der Neue Zollhof,1994-1999)」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오피스 건축물로 메탈, 석고, 벽돌의<sup>100)</sup> 각기 다른 재료를 통하여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진 3가지 건축군으로 라인 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다양한 높이를 가진 매스가 기능에 따라 모여 있으며 사선벽면과 뒤틀려진 매스는 건축에 역동성을 주고 대지에서 솟아난 듯한 느낌을 준다. 가운데 건물의 벽 표면은 축 늘어진 옷감의 주름과 비슷하고 이 물결치는 벽은 스테인레스 스틸에 둘러싸여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 낸다. 데어 노이에 출호프에 나타난 다양한 마감재와 조형성은 프랭크 게리의 특징이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의 「네셔널 네덜란덴 빌딩(National Nederlanden Building,1992-1996)」은 체코 프라하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춤추는 건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주목을 받은 작품으로 1996년 TIME지 최고의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플라자 쪽으로 몸을 내밀어 거리를 확장시키는 입체적인 실린더 모양의 타워와 코너 쪽으로 비틀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유리타워<sup>101)</sup> 두 가지로 이루어져있다. 강독을 향하고 있는 외부의 정면은 강변의 이미지와 맞물려 일정하지 않게 늘어선 창과 수평 줄무늬가 물결무늬를 이루고 있다<sup>102)</sup>. 그는 건축물에 도시의 전통과 문화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여 프라하의 건축물에 사용하는 석고 플라스터를 마감재로 선택

100) 밀드레드 프리드먼, 이종인 역(2010), 전계서, p.186

101) 이일형(2004), 전계서, p.85

102) 오정훈(2007), 전계서, p.33

하였고, 건물 옆에 자리한 바로크풍의 건축물들과 통일성을 깨지 않으면서도 규칙과 질서에 얽매어 있는 사고방식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그림 17> 프랭크 게리, 「테어 노이에 출호프」 1994-1999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188)



<그림 18> 프랭크 게리, 「네셔널 네덜란덴 빌딩」 1992-1996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146)

#### (4) 스케일의 변형

스케일의 변형은 건축물의 형태 변화 없이 크기를 축소, 확대하는 변형 과정으로<sup>103)</sup> 기본형을 변화시켜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본형이 지니던 의미를 수용하되 기본 형태를 절연시켜 의미는 유보되고 형태는 자유로워진다. 또한 지속 반복적인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고 매스 간에 상호 연계성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미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그림 19>의 「MIT 레이 앤 마리아 스타타 센터(MIT The Ray and Maria Stata Center,1999-2004)」는 하나의 타운을 캠퍼스에 유추·도입하는 건축물로 MIT의 정체성과 다양성, 특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장시간에 걸쳐 계획되었다. 그의 2, 3, 4기 특징이 복잡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원색의 사용을 통한 대중과의 호흡,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병치, 면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하여 전위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의 「게리 하우스(Gehry House,1977-1978)」는 미국 산타모니카 교외에 위치한 게리의 자택으로 기존의 집을 증축·개조 한 것이다. 이 집은 그를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하였고 쓰레기 건축이라는 흑평과 동시에 그를 따르는 건축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sup>104)</sup>. 골함석판, 연결사슬철망, 미송합판, 목조 프레임 등의 값싼 재료를 사용하여 단편화, 절제, 회전, 뒤틀림 등의 방법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며 이는 지어지는 과정인지 해체되는 과정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값싼 함석판의 외부와 지붕 옆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철망은 폭격으로 부서지고 어수선한 피난집 같아 보이지만<sup>105)</sup> 그는 건물의 완전한 영구성을 추구하기보다 주어진 순간을 구체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며, 정해진 질서나 틀에서 벗어나고자

103) 이지민(1999), 전계서, p.150

104) 박하나(2008), 「들뢰즈의 주름론을 통한 해체주의 건축의 현대적 재조명-프랭크 게리, 램 쿨하스, 피터 아이젠만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9

105) 이관용(2006), 「Los Angeles-자유와 실험, 진보를 향한 건축도시」, 서울:미술문화, p.56

함을 게리 하우스에 나타냈다.



<그림 19> 프랭크 게리, 「MIT 레이 앤 마리아 스타타 센터」 1999-2004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227)



<그림 20> 프랭크 게리, 「게리 하우스」 1977-1978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55)

#### (5) 형태의 유희

형태의 유희는 구속된 상태에서 끌어내 차연의 운동으로 의미를 변환시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는 것으로<sup>106)</sup> 상관성, 보완성, 상징성을 지닌다.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기존의 형태를 파괴, 단편화, 단순한 형태를 변형, 조합, 중첩, 회전시켜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며<sup>107)</sup> 디자인 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연의 창출, 자유로운 해석의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

<그림 21>의 「EMP(Experience Music Project,1995-2000)」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음악 문화공간으로 전시공간과 기념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자연을 모티브로 하여 하늘교회, 교차로, 소리 연구당, 예술가의 공간, 전자 도서관, Ed.House의 6개 매스로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기획하였으며 각각의 매스는 독립성이 강조되어 있다<sup>108)</sup>. 스테인레스와 채색 메탈의 물성을 강조한 여러 형태의 매스들은 유기적이고 비선형적인 독특한 형상을 이루어 경관속의 오브제로 자리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에 자리하고 있는 <그림 22>의 「DZ 은행(DZ Bank,1995-2001)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있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으로써<sup>109)</sup> 정형적인 건물 내부에 곡선적인 거대한 오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담황색 라임스톤으로 이루어진 정형적 그리드 체계의 외관과 이와는 대조적인 비정형적 내부는 이용자에게 극적인 체험을 제공하며 추상적이지만 뚜렷한 형상을 지닌 말머리 모양의 오브제는 컨퍼런스 센터로 건물 내부 중앙에 자리하여 주목성과 기념비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106) 이지민(1999), 전게서, p.150

107) 정희윤(2014), 전게서, p.16

108) 배이진(201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프랭크 게리 뮤지엄 건축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1

109) 이진재(2004), 「시뮬라시옹 이론의 이미지 변화 과정으로 본 건축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프랭크 게리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9



<그림 21> 프랭크 게리, 「EMP」 1995-2000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197)



<그림 22> 프랭크 게리, 「DZ 은행」 1995-2001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 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밀드레드 프리드먼 저(2010), p.203)

### Ⅲ. 작품 제작

#### 1. 작품 제작 의도 및 방법

현대사회의 메이크업은 미의식 변화로 인하여 창의적이고 독특한 예술적 특성을 지닌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얼굴에 표현 가능한 재료와 범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여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해체주의와 프랭크 게리 건축물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타 장르와의 혼합을 통한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해체주의는 여러 장르의 해체와 혼합을 통하여 개방성을 띤 유연성 있는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이는 예술분야의 폭을 넓게 만들어 전위적인 방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회화적인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조형, 설치 미술 등에서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체주의의 특성을 프랭크 게리 건축의 조형성을 활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접목시킴으로써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작품에서 전반적인 색감과 재료는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에서 착안한 재료의 색채와 물성을 사용하였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오브제로 사용하지 않는 철판, 철사, 나무껍질 등을 활용하였다.

작품은 총 8작품으로 차연의 특성을 형태의 유희와 탈중력성을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 2점, 상호텍스트성을 비정형성과 탈중력성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 2점, 불확정성이라는 특성을 중첩성과 형태의 유희, 스케일의 변형을 이용하여 표현한 작품 2점, 탈현상을 스케일의 변형과 비정형성을 이용하

여 표현한 작품 2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작품 계획은 <표 1>과 같다.

<표 1> 작품 디자인 계획

작품명	특성		소재	색채	일러스트
작품 I	차연	형태의 유희	마블링 물감 아크릴 물감	Black Blue Purple Sky blue	
작품 II		탈중력성	홀로그램 종이 철판	Silver Gold Red	
작품 III	상호 텍스트성	비정형성	철사	White Black Silver	
작품 IV		탈중력성	철판	Silver	
작품 V	불확정성	중첩성, 형태의 유희	칼라 클레이 아크릴 물감	Incarnadine Red	
작품 VI		중첩성, 스케일의 변형	아크릴 물감 종이 낙시줄	Silver Red Blue Purple	
작품 VII	탈현상	스케일의 변형	나무껍질 이끼	Brown Green	
작품 VIII		비정형성	락카 반짝이 핫피스	Gold Red Purple Blue	

## 2. 작품 제작

### 1) 작품 I



#### (1) 작품설명

<그림 23>의 작품 I은 차연이라는 해체주의 특성을 프랭크 게리 건축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나타낸 작품으로써, 우연의 연속으로 얻어지는 마블링 기법을 통하여 유기적이고 비선형적인 독특한 형상을 만들어내 형태의 유희를 표현하였다. 자연을 모티브로 하여 지어진 'EMP'에 영감을 얻어 자연보다 더 포괄적 개념인 우주를 이미지로 나타냈다. 워터 마블링으로 나타난 여러 문양 중 원하는 색과 모양의 문양을 오려 붙이고 일정하지 않은 곡선과 반짝이를 사용하여 은하의 신비로움과 미지의 세계를 연출하였다. 작품 I의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Black, Blue, Purple, Green, Red, Yellow색 마블링 물감을 사용해 워터 마블링 한 뒤 종이를 말린다.
- ② 원하는 색과 문양으로 마블링이 잘 된 부분을 잘라 마스크에 붙여 형태를 만든다.
- ③ 여백에 Blue, Purple, Navy색 아크릴물감을 순차적으로 올린 뒤 Black 색으로 마블링 붙인 주변을 정리하여 문양을 강조한다.
- ④ Sky blue, Emerald색 아크릴 물감으로 일정하지 않은 곡선을 그린 뒤 Silver, Sky Blue, Purple, Navy 색 반짝이로 별을 나타낸다.

<표 2>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차연
	형태의 유희
재료	마블링 물감, 아크릴 물감, 종이, 반짋이
색채	



<그림 23> 작품 I

## 2) 작품 II

### (1) 작품설명

작품 II <그림 24>는 프랭크 게리 건축에 많이 사용되어진 메탈이라는 재료의 물성을 이용하여 탈중력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홀로그램 종이의 구겨짐과 얇은 철판의 휘어짐을 통하여 프랭크 게리의 건축에서 보여지는 구조적인 모습을 작품으로 연결했다. 투명 마스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구겨진 홀로그램 종이는 ‘테어 노이에 출 호프’와 같이 빛의 반사에 따라 여러 색을 내고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달라보이게 하였으며, 그가 즐겨 사용하였던 색채를 이용한 휘어진 철판 오브제는 ‘네셔널 네덜란덴 빌딩’ 등의 여러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비선형적인 움직임 표현하여 율동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II의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홀로그램 종이를 구겨 원하는 형태를 잡아 고정시켜준다.
- ② 투명마스크 안에 원하는 구겨짐이 보이도록 홀로그램 종이를 위치시킨 뒤 뒷면을 붙여 고정시켜준다.
- ③ Silver색 얇은 철판에 휘어짐을 주고 글루건을 이용하여 마스크와 붙여주고 연속적인 휘어짐을 만들어 고정시켜준다.
- ④ Gold색 철판도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글루건으로 붙여준다.
- ⑤ Silver색 철판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Red색 셀로판지를 붙여주고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 휘어짐을 만든 뒤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준다.

<표 3> 작품 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차연
	탈중력성
재료	홀로그램 종이, 얇은 철판, 셀로판지
색채	



<그림 24> 작품 II

### 3) 작품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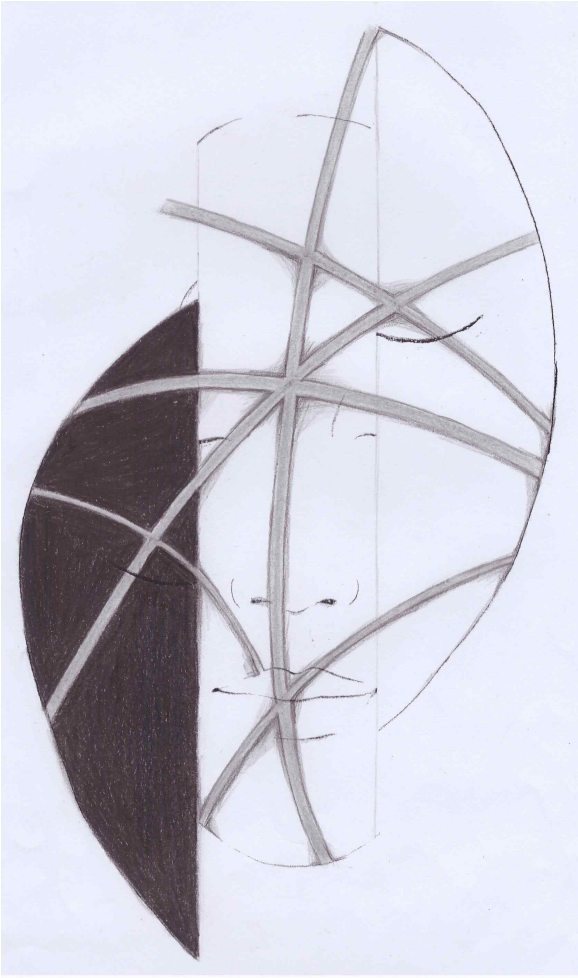
#### (1) 작품설명

<그림 25>의 작품 Ⅲ은 색이 다른 마스크를 이용하여 비정형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각각의 마스크를 단차가 생기도록 배치하고 여러 굵기의 철사를 오브제로 사용하였다. 마스크라는 정형성이 가진 형태와 질서를 왜곡·붕괴 시켜 유기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철사를 이용한 3차원의 공간구성을 통하여 입체감을 부여하였다. 서로 다른 3가지 색의 마스크를 세로로 분할한 뒤 연결하여 하나의 마스크로 만들고 굵기가 다른 철사를 연결하여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마스크와 다른 모습의 새로운 마스크를 만들어내 일원화, 획일화를 거부하고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상호 텍스트성을 표현하였다. 곡선으로 움직임과 역동성을 부여한 ‘비트라 디자인 박물관’처럼 굵기가 다른 철사를 교차시켜 조형성을 강조하였다. 작품 Ⅲ의 구성 내용은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Black, White, Transparent색 마스크를 세로로 3등분하여 자른다.
- ② 마스크를 붙일 수 있도록 잘린 면을 사포로 정리하여준다.
- ③ 단차가 생기도록 배치한 뒤 고정시켜준다.
- ④ 굵기가 서로 다른 3종류의 철사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교차되게 붙여준다.

<표 4> 작품 I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상호텍스트성
	비정형성
재료	마스크, 철사
색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width: 20px; height: 15px;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white;"></div> <div style="width: 20px; height: 15px;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white;"></div> <div style="width: 20px; height: 15px;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black;"></div> <div style="width: 20px; height: 15px; border: 1px solid black; background-color: #cccccc;"></div> </div>



<그림 25> 작품 III

#### 4) 작품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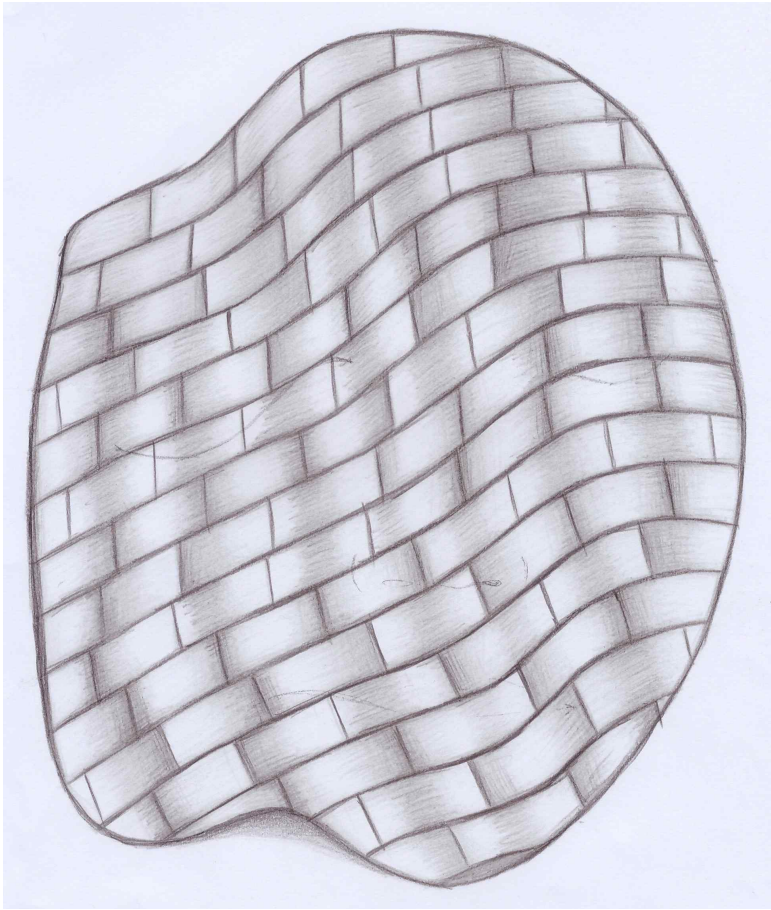
##### (1)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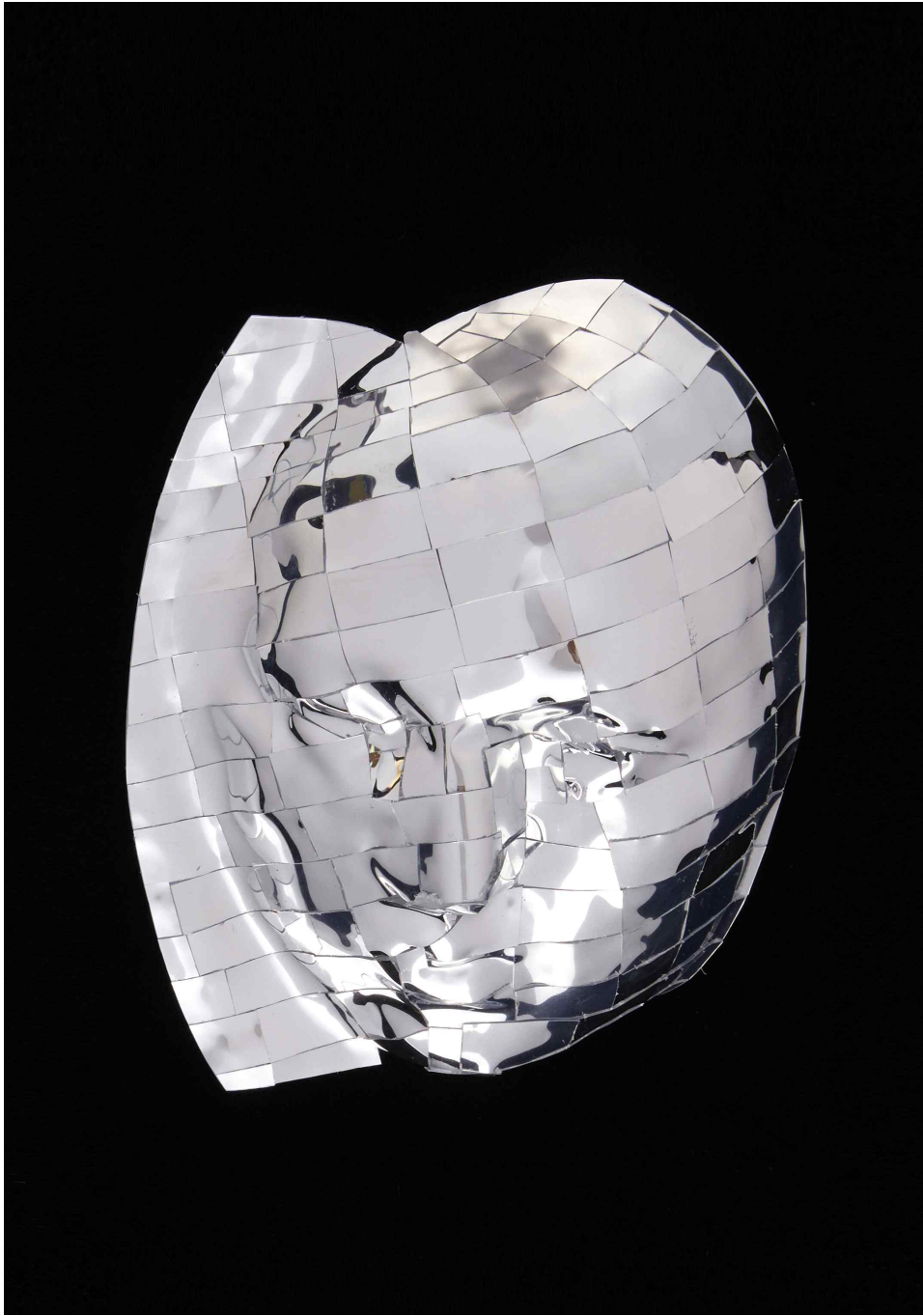
작품 IV <그림 26>은 변형시킨 마스크를 이용하여 탈중력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프랭크 게리가 즐겨 사용했던 조각낸 메탈을 이용하였다. 불규칙적이게 일그러진 마스크로 중력의 반발적 표현과 무게중심 이탈 등의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중심이동으로 움직이는 듯한 율동성을 부여하였다. 얇은 철판을 일정한 간격과 모양으로 잘라 붙임으로써 메탈의 물성을 이용하여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을 연상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서로를 지지하는 것 같이 붙어있는 조각은 물결치듯 복잡한 형체를 이루어 텍스트 간의 자율적 병행 불가능과 상호관계 형성을 표현하였다. 작품 IV의 구성 내용은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형체를 일그러트릴 부분의 마스크를 끓는 물에 넣어 흘러내리는 듯한 형태로 만들어가며 녹여준다.
- ② 원하는 형태가 되면 차가운 물에 넣어 모양을 굳혀준다.
- ③ 일정한 모양과 간격으로 얇은 철판을 잘라 마스크의 불규칙한 모양을 살려 붙여준다.

<표 5> 작품 IV-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상호텍스트성
	탈중력성
재료	얇은 철판
색채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width: 100px; height: 15px; margin: 0 auto;"></div>



<그림 26> 작품 IV

## 5) 작품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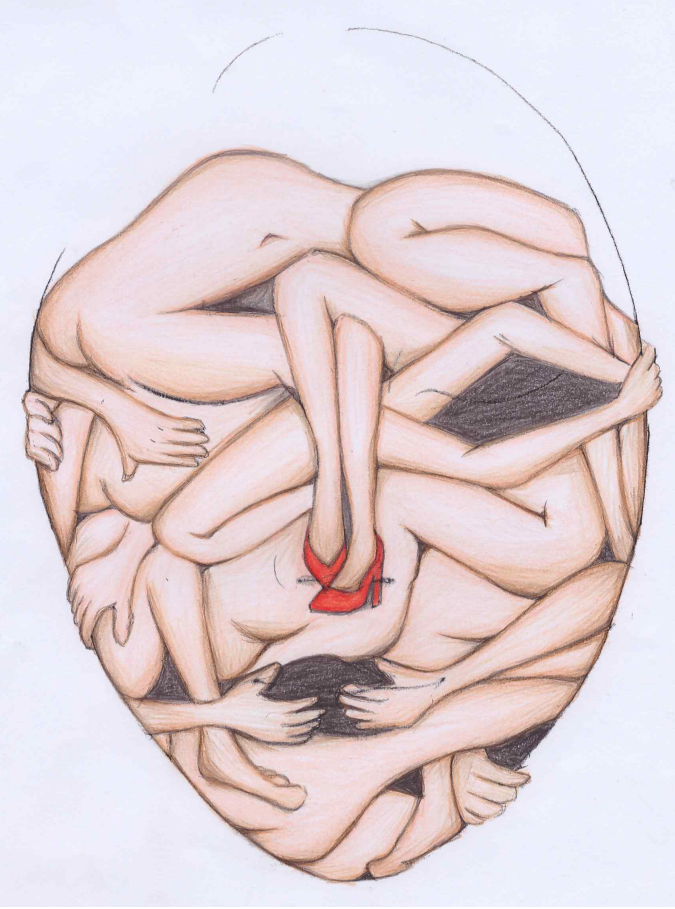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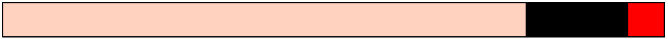
### (1)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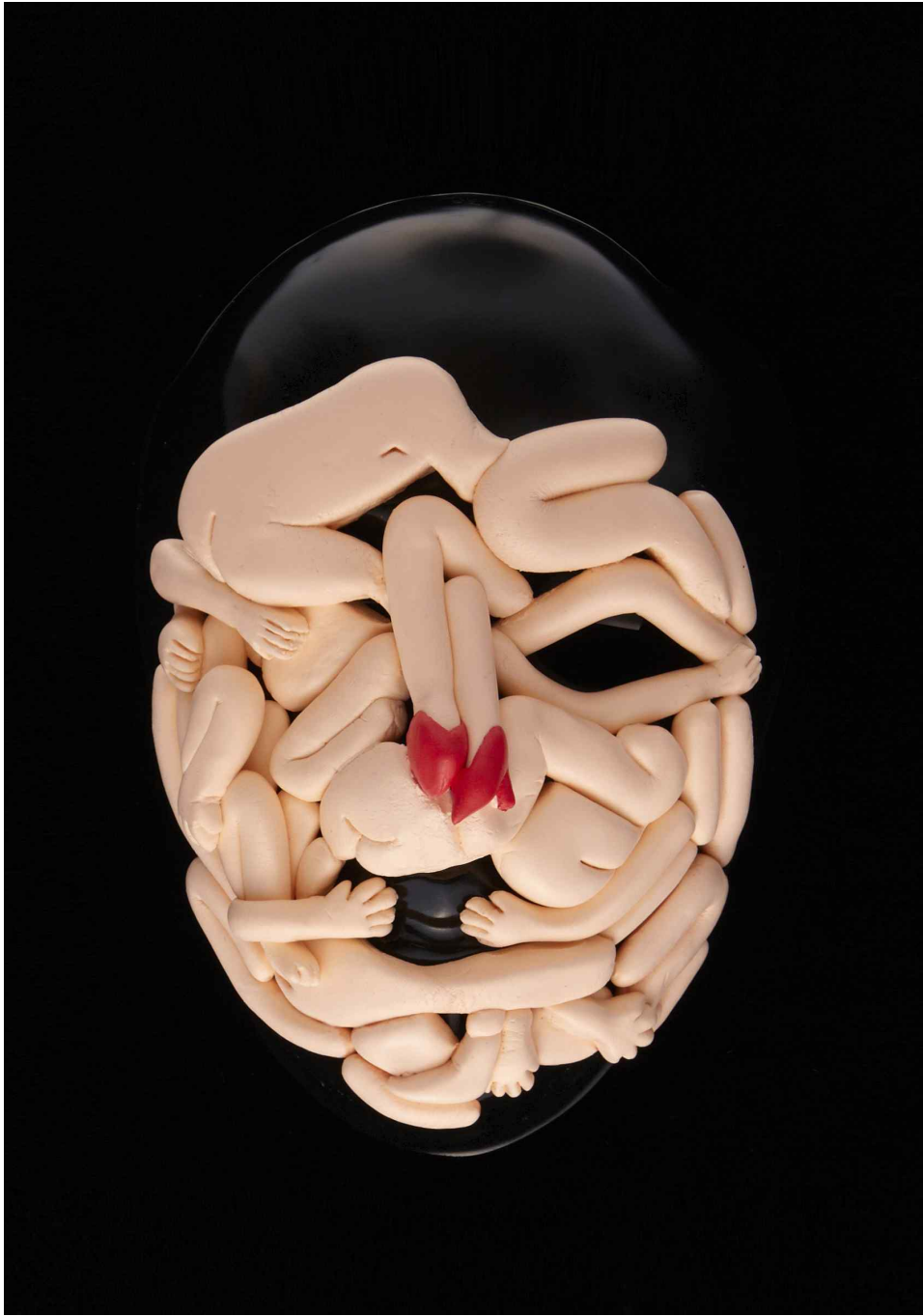
<그림 27>의 작품 V는 신체 모형을 이용하여 중첩성과 형태의 유희를 나타낸 작품으로 팔과 다리 등의 신체 라인으로 이목구비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 작품은 역발상으로 다의적인 해석을 의도하였으며, 클레이로 만든 팔과 다리의 유기적인 형태가 중첩되어 얼굴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냄으로써 재료와 형태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고 한계범위가 존재하지 않는 불확정성을 표현하였다.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와 같이 각 매스가 분리되어 있는 듯하면서도 하나로 이루어지는 결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DZ 은행’처럼 추상적이지만 뚜렷한 형상을 지닌 오브제의 사용으로 상관성, 보완성, 상징성을 지니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열린 사고를 지향하였다. 작품 V의 구성 내용은 <표 6>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의 눈 부분을 뚫어준 뒤 사포로 자른 면을 정리해준다.
- ② Incarnadine색 칼라 클레이를 반죽하여 오브제로 붙일 신체의 모양으로 빚어준다.
- ③ 팔, 다리, 몸 모양의 오브제를 이목구비의 형태로 구성하여 붙여준다.
- ④ Red색 칼라 클레이를 반죽하여 하이힐 모양으로 빚어 붙여준다.
- ⑤ 그늘에서 클레이가 굳을 수 있게 말린 뒤 크리스탈 바니쉬를 얇게 발라 말려준다.

<표 6> 작품 V-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불확정성
	중첩성, 형태의 유희
재료	칼라 클레이, 아크릴 물감, 크리스탈 바니쉬
색채	



<그림 27> 작품 V

## 6) 작품 VI



### (1) 작품설명

작품 VI <그림 28>은 프랭크 게리 건축물의 구조적인 모습을 사용하여 중첩성과 스케일의 변형을 나타낸 작품으로 사각형의 도형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배열하였다. 사각형의 도형이 무한하게 확장되어 3차원의 입체적인 도형으로 연결됨을 보여주어 한계범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었고, 티타늄과 스테인레스의 느낌이 날수 있게 은색의 오브제의 중첩시켜 ‘윌트 디즈니 콘서트 홀’을 연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마스크 자체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의 건축물에 많이 볼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해 반복적인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였으며 ‘제이 프리즈커 파빌리온(Jay Prizker Pavilions)’에서 보여지는 매스간의 연결을 Sky blue색 줄을 사용하여 연출하였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와 낚시줄을 이용하여 제작한 작품 VI의 구성 내용은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Red, Yellow, Purple, Wine, Blue, Gray, Black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사각형의 도형을 음영을 살려 입체감 있게 그려준다.
- ② Silver색 종이로 도형을 만들어준다.
- ③ 만들어진 오브제를 글루건으로 고정시켜준다.
- ④ 낚시줄에 스프레이를 뿌린 뒤 Sky blue색 반짝이를 붙이고 도형과 삼각형의 구조로 연결한다.
- ⑤ 낚시줄을 이은 모서리에 Wine색 큐빅을 붙여준다.

<표 7> 작품 V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불확정성
	중첩성, 스케일의 변형
재료	아크릴 물감, 메탈 종이, 낚시줄, 큐빅
색채	



<그림 28> 작품 VI

## 7) 작품 VII



### (1) 작품설명

<그림 29>의 작품 VII은 나무껍질을 이용하여 스케일의 변형을 나타낸 작품으로 나무껍질을 마스크에 붙여 얼굴의 형태를 나타냈다. 비주류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탈현상에서 영감을 받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나 메이크업의 오브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나무껍질을 주재료로 하였다. 재료 자체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것을 이용해 새로운 마스크 형태를 보여주고자 하였고, ‘게리 하우스’와 같이 주변에서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지만 주로 사용되지 않는 이질적인 재료의 반복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VII의 구성 내용은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마스크의 눈 부분을 뚫어준 뒤 사포로 자른 면을 정리해준다.
- ② 나무껍질을 마스크의 형태에 맞게 붙여준다.
- ③ 나무껍질이 모여 입체감 있는 이목구비의 형태가 강조되도록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여준다.
- ④ 2가지 색의 이끼를 나무껍질 사이사이에 섞어서 붙여준다.

<표 8> 작품 VII-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탈현상
	스케일의 변형
재료	말린 나무껍질, 이끼
색채	



<그림 29> 작품 VII

## 8) 작품 VIII



### (1) 작품설명

작품 VIII <그림 30>은 해골을 이용하여 비정형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비비드한 컬러를 이용하여 해골 고유의 정형적인 이미지를 해체하였다. 해골 이미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화려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방식의 파괴를 도모하였다. 해골 이미지를 나타내는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되 재료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 고자 하였으며, 프랭크 게리의 건축물에 자주 등장하는 기울어진 벽체와, 곡선을 모티브로 하여 형태를 구성한 오브제를 붙였다. 다른 건축물에 흔히 쓰이지 않으나 ‘마르께스 데 리스칼 호텔(Stay at Marqués de Riscal)’ 과 EMP’등을 연상 시킬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였다. 작품 VIII의 구성 내용은 <표 9>와 같이 정리하였다.

### (2) 제작방법

- ① 눈과 코를 잘라낸 뒤 사포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양을 잡아준다.
- ② Gold색 락카를 마스크에 뿌린 뒤 같은 Gold색 반짝이를 붙이고 스프레이를 뿌려 고정시켜준다.
- ③ 얇은 철판은 물결치듯 휘게 모양을 잡아 글루건으로 마스크에 고정시켜 준다.
- ④ Yellow, Red, Blue, Purple, Pink색 핫피스를 규칙적으로 철판위에 붙여 준다.
- ⑤ Ruby색 정사각형 핫피스를 눈부분의 곡선에 맞게 붙여준다.
- ⑥ Brown, Dark green, White, Black색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해골의 치아를 그려준다.

<표 9> 작품 Ⅷ-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특성	탈현상
	비정형성
재료	락카, 얇은 철판, 핫피스, 반짝이, 아크릴 물감
색채	



<그림 30> 작품 VIII

## V. 결론

해체주의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에서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소재와 기하학적이고 구조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해석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재와 디자인의 등장으로 획일적이고 의미 없는 미의 추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융합을 활용하여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접목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을 창조해내고, 더 나아가 여러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메이크업의 예술성을 극대화 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전문 서적과 연구 논문 등을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 및 해체주의의 특성과 프랭크 게리 건축의 조형성을 활용한 아트마스크 작품 제작을 채택하였다. 연구 범위는 해체주의 개념과 특성, 분야별 대표 작가의 작품을 고찰 한 후 프랭크 게리 건축물의 조형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메이크업에 사용하지 않던 오브제와 형태 변형을 통한 해체주의 디자인을 선보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장르의 해체와 재해석을 통하여 재료와 범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고 디자인 개념에 적용 가능한 특성을 차연,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현상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철학적이론에서 시작된 해체주의가 미술, 패션, 건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대중들과 어떤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메이크업과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랭크 게리 작품 세계에 영향을 미친 성장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대표적인 해체주의 건축가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았고 그의 창조적 디자인 개념을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 반영, 기존의 형식 파괴로 자유로운 형태 선호, 우연적인 형태 창출로 설명하였다. 또한 작품적 특징을 모더니즘 계승 및 이탈 시기, 재료 물성 추구 시기, 형태언어 정립 시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 시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과 시기별 특징들을 토대로 그의 작품을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적 특성으로 분석하여 정형성이 가진 형태와 질서를 왜곡·붕괴시켜 유기적인 형태를 의미하는 비정형성, 면이나 형태들이 여러층 겹쳐져 원형과 다른 형태, 의미의 혼합과 재구성 이질적 재료의 혼합으로 표현되는 중첩성, 중력의 반발적 표현으로 무게중심 이탈, 방향성의 왜곡을 통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탈중력성, 형태 변화 없이 크기를 축소, 확대하고 지속 반복적인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는 스케일의 변형, 우연의 창출, 자유로운 해석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형태의 유희로 분류하였다.

셋째, 분석한 해체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총 8점의 해체주의 조형적 특성을 가진 아트마스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 II는 공간적인 차이에 시간의 흐름을 도입하여 시·공간의 초월과 개념 해체 등을 의미하는 차연이라는 특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마블링과 홀로그램 종이의 구겨짐으로 만들어지는 우연적인 형태에 유기적인 형태의 철관을 오브제로 붙여 형태의 유희와 탈중력성을 나타낸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작품 III, IV는 경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해체하고 서로의 흔적을 받아들여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지속 발전하는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낸 작품이다. 작품 III는 비정형성을 활용하여 색이 다른 3가지 마스크를 분해·재조립하고 불규칙적으로 철사를 연결하여 새로운 하나의 마스크를 표현하였고, 작품 IV의 경우 일그러뜨린 마스크의 형태에 프랭크

게리가 건축물에 자주 사용했던 메탈의 물성을 이용하여 탈중력성을 나타내었다.

작품 V, VI은 각 요소의 의미가 무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불확정성을 중첩성과 형태의 유희, 스케일의 변형을 통하여 표현한 작품으로 클레이로 만든 신체 모양을 중첩시켜 얼굴의 형태를 만들고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점차 발전시켜 입체적인 도형에 도달하도록 작품을 완성하였다.

작품 VII, VIII은 무가치하고 소외되었던 것들이 해체주의적 시각을 통하여 새로운 미학으로 창조되는 탈현상을 스케일의 변형과 비정형성을 통하여 나타냈다. 작품 VII은 오브제로 잘 이용되어지지 않는 나무껍질이 모여 마스크로 표현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고, 작품 VIII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오브제로 활용되었던 핫피스와 반짝이가 해골을 만나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낼 수 있음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작품 제작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프랭크 게리가 즐겨 사용했던 재료와 색채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건축물의 조형적인 요소를 오브제로 부착해 입체적인 아트마스크를 완성하였으며, 이는 흔히 사용하지 않는 재료들로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작품 안에서 조형적인 모습으로 빛을 발하였다.

해체주의가 미술 사조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되고 발상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후에도 더욱 독창적이고 다양한 메이크업 디자인이 선보여지길 바라며, 메이크업이 분야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고영은(201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아트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
- 권려원(2010), “프랭크 게리 작품을 응용한 드레스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준, 정재욱(2004), “프랭크 게리와 피터아이젠만의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적용방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 pp.211-218
- 김두진, 조용수(2008), “피터 아이젠만 건축의 스키마와 생성다이아그램”,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4(1), pp.3-10
- 김민진(2006),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해체주의 메이크업의 이미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 7(3), pp.23-46
- 김선란, 유재우(2010), “피터 아이젠만의 자율적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6(3), pp.121-130
- 김성곤(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민음사
- 김아진, 도규희(1999), “해체주의 조형성에 따른 패션디자인의 연구”, 경일대학교, 16(1), pp.1623-1633
- 김옥동(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현암사
- 김재원(2014), “현대미술에 영향을 미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 pp.183-197

- 김주영(1995),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1990),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연, 전해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건축과 복식의 비교”, 한국복식학회, 32(9), pp293-312
- 김지현(2001),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연구-1970~198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서울;민음사
- 김혜정, 임영자(1998),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40(10), pp.137-147
- 나선영(2001), “해체주의와 현대 화예디자인-데리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화예디자인학회, 4(8), pp.63-77
- 남형우(1989), “현대 건축에 나타난 공간 형태의 중첩성에 관한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미영(2003), “프랭크 스텔라 작품에서의 형태연구”, 전주대학교 예술문화 종합연구소, 5(1), pp.119-131
- 밀드레드 프리드먼, 이종인 역(2010), 게리-프랭크 게리가 털어놓는 자신의 건축세계, 과주;미메시스
- 박수진, 송연숙, 이근광(2013), “컬렉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2006~2011년 오프꾸뛰르·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 19(2), pp.183-191
- 박연선(2007), 색채용어사전, 서울;예림

- 박영옥(2008), “현대건축의 담론에 나타난 공간개념의 비판적 고찰-베르나르 추미와 장누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19(3), pp.231-270
- 박하나(2008), “들뢰즈의 주름론을 통한 해체주의 건축의 현대적 재조명-프랭크 게리, 램 쿨하스, 피터 아이젠만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광자, 김준연(2006), “베르나르 추미의 라 빌레뜨 공원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조경협회, 8(1), pp.1-8
- 배이진(2012),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프랭크 게리 뮤지엄 건축의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성희(2013), “피터 아이젠만 건축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명숙(2009), “현대미술의 탈구축과 반근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미숙, 박상국(2008),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예술학회, 2(1), pp.5-16
- 양윤정(1993),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세은(1992),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언어적 개념과 실내환경디자인에의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혜정(1998),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세계와 미적 특성”, 한국복식학회, 37(5), pp.71-88
- 오정훈(2007), “프랭크 게리의 건축 형태와 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레이 마리아 스타타 빌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2007), “부정과 실험정신으로 본 마르셀 뒤샹의 예술세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소정(1996), “해체주의적 복식디자인에 관한 연구-탈형식의 코디네이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재은(2000), “해체주의 건축의 외적 조형성과 내적 조형공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프랭크게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4(4), pp.23-30
- 은영자, 김선혜(2002),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패션”, 계명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28(9), pp.99-110
- 이건재(2004), “시물라시옹 이론의 이미지 변화 과정으로 본 건축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프랭크 게리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재, 김억(2004), “장 보드르야르의 시물라시옹 이론의 이미지 변화로 살펴본 건축표현에 관한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4(2), pp.439-442
- 이관용(2006), Los Angeles-자유와 실험, 진보를 향한 건축도시, 서울;미술문화
-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교보문고
- 이영화(2003), “프랭크 게리의 조형 언어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16(2), pp219-232
- 이영화(2007), “현대미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프랭크 게리 건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일형(2004), 프랭크 게리 최초의 해체주의 건축가, 파주;살림
- 이지민(1999), “피터 아이젠만의 해체주의 이론과 작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1(20), pp.147-153

- 이지운(1994), “해체주의 공간의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2010),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2013), “프랭크 스틸라 작품을 통해 본 형식주의 모더니즘의 해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광숙(1998), “해체디자인의 문화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범우(2006), “프랭크 게리 건축의 형태와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운(2014), “해체주의 건축의 조형성을 응용한 헤어/패션 연구-프랭크 게리 작품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말희(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진일(1994),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배경과 디자인 성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페넬로페 도이처, 변성찬 역(2007), HOW TO READ 데리다, 서울;웅진씽크빅
- 페터 지마, 김혜진 역(2001), 데리다와 예일학과, 서울;문학동네
- 허정아(2004), “베르나르 추미의 해체주의 건축미학-라 빌레트 공원에서의 건축과 철학의 만남”, 한국미학회, 38(8), pp.263-289
- 현수정(2010), “마르셀 뒤샹 작품에 나타난 앤드로지니의 차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인터넷 자료

마르셀 뒤샹(1923), “그녀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 (검색일자, 2014.9.17.), <http://www.mu-um.com/Files/Art/kor/201407/1406450671.jpg>

베르나르 추미(1998), “라 빌레뜨 공원”, (검색일자, 2014.9.18.), <http://c2down.cyworld.co.kr/download?fid=64223cb396f0ec99c4973cbd29e41769&name=Parc-de-la-Villette.jpg>

베르나르 추미(2007), “신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검색일자, 2014.9.18.), <http://cfile9.uf.tistory.com/image/2278C236524E5A100F380E>

비비안 웨스트우드(2013), “2013 F/W Paris”, (검색일자, 2014.9.18.), <http://thebestfashionblog.com/wp-content/uploads/2013/09/Vivienne-Westwood-Fall-Winter-2013-2014-RTW-6-600x899.jpg>

비비안 웨스트우드(2010), “2010 S/S Paris”, (검색일자, 2014.9.18.), [http://postfiles15.naver.net/20140307\\_30/0200375032\\_13941792073395FidH\\_JPEG/6.jpg?type=w2](http://postfiles15.naver.net/20140307_30/0200375032_13941792073395FidH_JPEG/6.jpg?type=w2)

장 폴 고티에(1990), “마돈나 의상”, (검색일자, 2014.9.18.), <http://vogue-era.tumblr.com/image/91828528187>

장 폴 고티에(2008), “2008 F/W Paris”, (검색일자, 2014.9.18.), <http://cfs11.blog.daum.net/image/2/blog/2008/08/04/20/25/4896e6f46536f&filename=%ED%8C%A8%EC%85%98%EC%91%883.jpg>

프랭크 스텔라(1971), “오델스크Ⅲ”, (검색일자, 2014.9.18.), <http://uploads7.wikiart.org/images/frank-stella/odelsk-iii-1971.jpg>

프랭크 스텔라(1979), “카스투라”, (검색일자, 2014.9.18.), <https://www.flickr.com/photos/slider5/418135151/>

피터 아이젠만(1975), “주택Ⅵ”, (검색일자, 2014.9.18.), <http://ad009cdnb.arc>

hdaily.net/wp-content/uploads/2010/06/1275626736-njit2pic-528x312.jpg

피터 아이젠만(1985), “IBA 소셜하우징”, (검색일자, 2014.9.18.) [http://www.itaproject.eu/TTU/2/02\\_images/b04-Berlino-Eisenman\\_01.jpg](http://www.itaproject.eu/TTU/2/02_images/b04-Berlino-Eisenman_01.jpg)

# ABSTRACT

## A Study on the Works of Art Mask Applying Features of De-constructivism

Sin, Na Ri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Make-up·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oday, the society is forming a new paradigm with an avant-garde ways beyond the conventional traditions and values in the entire fields of arts as cultures become diverse with openness and concerns for those of minorities. In fine arts, 'De-constructivism', one of main trends to pursue new changes, was introduced, as well. De-constructivism has influences in various fields of literature, art, architecture, fashion, and cosmetics, based on a philosophical theory to overcome limits by de-constructing and de-building the existing things, pursuing new changes and showing possibilities of interpretation of new designs by encounter with diverse fields. However, it still lacks for discussing artistic values in make-up. The contemporary make-up requires unique designs as their own artistic values and reflecting the artists' ideas and social backgrounds at that time, transcending just a pursuit of beauty.

This study aims at overcoming limits of make-up arts, suggesting directions for new make-up designs with diverse attempts, and extending the field by applying figurativeness of Frank Gehry, one of architects who represent De-constructivism.

For the research methods, theoretical backgrounds were established through reviewing and analysing the previous literatures and the works with features of De-constructivism and figurativeness of Frank Gerhy's architectures were made by using various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features of De-constructivism, those available for applying to design concepts were classified into difference, intertextuality, uncertainty and deviation. And then, how De-constructivism communicates with people by means of art, fashion and architecture was figured out, and based on this,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through fusion between various genres was examined. Second, Frank Gehry's backgrounds affecting his works were studied and his creative design concepts were explained with reflection of image of nature itself, preference of natural forms, creation of incidental forms. In addition, characteristics of his works were categorized into succession of and departure from Modernism, pursue of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establishment of structural language and application of digital technology by time. Based on these design concept

s and characteristics of times, his architectures were analyzed with figurative features of architecture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ormlessness meaning organic forms by transforming and breaking

down forms and orders of fixed form, overlapping expressed with mixing and reconstructing of meanings and mixing of different materials, de-gravity presenting unstableness through deviation from the center of gravity and transformation of directions and transforming of scales inducing flows by decreasing and increasing size without changes of forms, creation of incidents and play pursuing open thought of free interpretations.

Third, the study results of the works of art mask applying features of De-constructivism are as follows:

For Work I, the image of universe is expressed by using water marbling and incidental, organic and non-linear form represents play of difference and form.

For Work II, inspired from 'Der Neue Zollhof' and 'Nationale-Niederlanden BLDG', it emphasizes non-linear mobility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through rumbling of hologram paper and bending of steel sheet with structural appearance, expressing difference and de-gravity.

For Work III, differences of levels of three different-colored masked and steel wires of different thicknesses are used to express intertextuality and formlessness and forms and orders of mask were transformed and broken for presenting organic forms.

For Work IV, distorted mask is attached with cut metals for intertextuality and de-gravity. It shows rhythmical beauty with unstableness and cuts of waves.

For Work V, forms from bodily parts such as arms and legs are

overlapped to express features and it intends interpretations with multiple meanings. And it expresses uncertainty, overlapping and play of forms.

Work VI is a piece to intend to remind the audience 'Walt Disney Hall' by developing colors and squares in Frank Gehry's architectures and expressing uncertainty, overlapping and transformation of scales.

Work VII is made with main materials of tree mark, which is cheap but not used as an objet frequently for a new form. It expresses de-phenomenon and transformation of scale.

Work VIII is made by using vivid colored hot pieces and pearls, de-constructing form image of skeleton in order to show destruction of construction methods, and it expresses non-phenomenon and formlessness.

This study shows that an artistic trend, architecture and make-up collaborated and represent a new fusion art and provide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genre as well as possibility of infinite make-up designs beyond the scope of expressions and limits of materials and everlasting exhibition of make-up through art-mask works.